Petrobras, 바이오에너지 투자 강화

브라질 정부, 바이오디젤 혼합비중 확대 … 5년간 28억달러 투자 계획

브라질 정부가 2009년 하반기부터 기존 디젤 연료에 바이오디젤을 4% 혼합한 B4 디젤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 따라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Petrobras는 2013년까지 5년간 바이오에너지 분야에 28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.

Petrobras는 바이오디젤 공장 3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8년 생산량은 목표치인 800만리터를 10% 초과한 880만리터에 달했다.

3개 공장의 생산능력은 1억7000만리터 수준으로 Petrobras를 포함해 브라질의 전체의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은 30억리터로 평가되고 있다.

브라질 에너지부는 "7월부터 디젤 연료에 대한 바이오디젤(Bio-Diesel) 혼합비율을 현재의 3%에서 4%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"고 밝혔다.

브라질에서는 2008년 초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2%인 B2 디젤 연료 판매를 시작한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혼합비율을 3%로 높인 B3 디젤 판매에 들어감으로써 지난해 바이오디젤 소비량이 12억리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B4 디젤을 도입하면 16억리터로 확대될 전망이다.

아울러 브라질 정부는 바이오디젤의 생산·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2013년까지 혼합비율을 5%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.

브라질산 바이오디젤의 원료로는 피마자, 해바라기, 콩 등 채유식물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, 현재 동물성 지방과 튀김용 기름 찌꺼기 등을 이용하는 방식도 개발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5/06>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